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및 문의	(문의 : 010-2500-4614, 플랫폼씨 최세윤)
제 목	**세상을 멈추자! 3.27 시민총파업, 대학생 동맹휴강으로 함께하자!**
발 송 일	2025. 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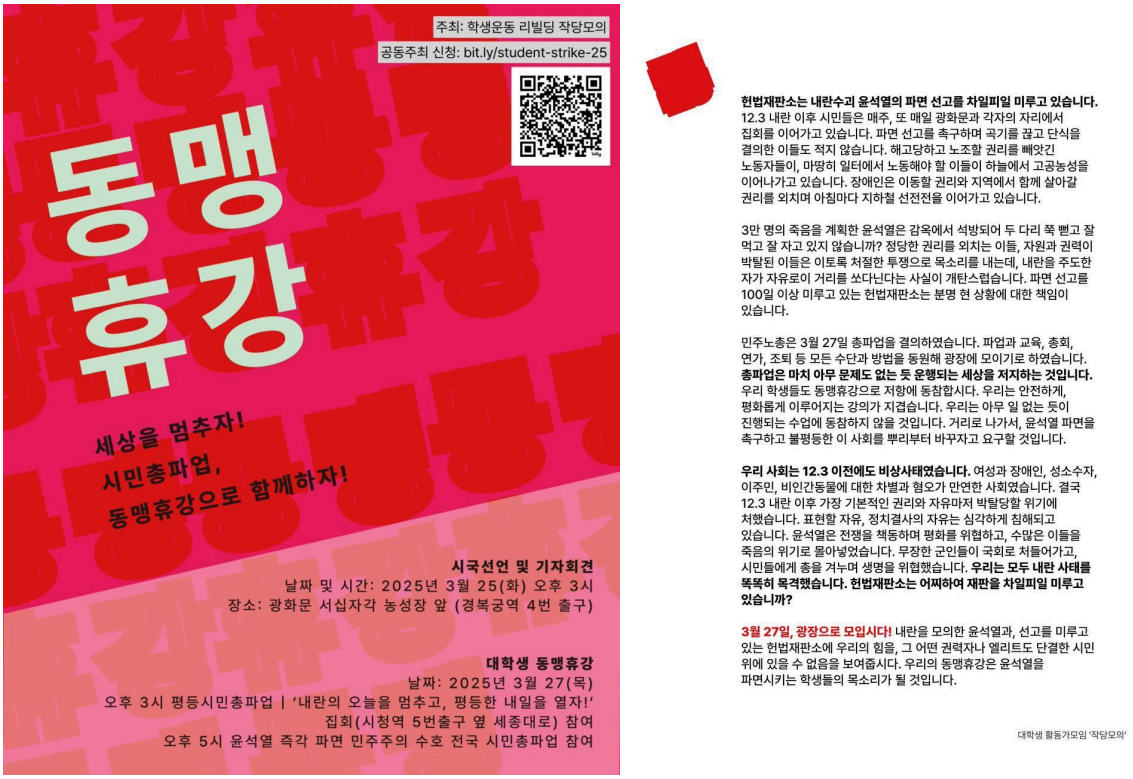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 60%가 넘는 시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검찰은 법적 관용을 윤석열에게만 적용해 결국 석방시켰고, 극우 세력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선동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00만명이 모였던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에 이어, 3월 22일 16차 범시민대행진에도 경복궁역부터 안국역까지 광장은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월 27일 오후 5시에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 내란이 종결되지 않은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을 되찾게 해달라며 호소하고, 대학생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극우 세력의 혐오 선동은 대학가에도 침투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파면을 시작으로 차별과 혐오를 퍼뜨리는 윤석열'들'을 넘어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대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노동이 존엄한 세상, 차별과 혐오 없고 차별금지법은 있는 세상, 이윤 대신 공존을 위한 기후정의가 당연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대학생들은 동맹휴강과 함께 3월 27일 시민총파업에 함께하는 **<3/27 시민총파업, 대학생 동맹휴강으로 함께하자!>** 기자회견을 **3월 25일(화) 오후 3시 광화문 서십자각 농성장 앞**에서 진행합니다.

4.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학내 동맹휴강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3월 27일(목) 오후 3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의 **‘평등시민 총파업 : 내란의 오늘을 멈추고, 평등한 내일을 열자’**에 이어, 3월 27일(목) 오후 5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총파업’**에 함께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홍보물 및 제안서



<‘세상을 멈추자! 3.27 시민총파업, 대학생 동맹휴강으로 함께하자!’ 기자회견 공동주최 및 동맹휴강 참여 요청>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윤석열'들'이 없는 사회로,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평등한 세상으로 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문제도 없는 듯

운행되는 세상을 저지하는 총파업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동맹휴강으로 저항에 동참합시다. 3월 27일 목요일, 전국 시민총파업으로 하루 일상을 멈추고 광장에 모입시다!

1.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

날짜 및 시간: 2025년 3월 25(화) 오후 3시

장소: 광화문 서십자각 농성장 앞 (경복궁역 4번 출구)

2. 동행휴강 교내 선전전

3월 27일 이전 동맹휴강을 홍보하는 선전전 각 학교에서 진행

피켓 및 유인물 PDF 파일을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AcuAb_ZH9gyFq8HFV4iECkOd4n72-fvB?usp=sharing

3. 대학생 동맹휴강

날짜: 2025년 3월 27(목)

- 오후 3시 평등시민총파업 | '내란의 오늘을 멈추고, 평등한 내일을 열자!' 집회 참여

(시청역 5번출구 옆 세종대로)

- 오후 5시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총파업 참여

주관: 학생운동 리빌딩 작당모의

공동주최: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울림', 계원예술대학교 학소위 잡초,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석순, 공주대학교 사회과학 소모임 토대, 노동·정치·사람, 동국대 맑스철학연구회, 동국대학교 도시산책소모임 산책은핑계고, 민주주의 지키는 한양대 긴급행동,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예술독서회, 숙명여대 공익인권학술동아리 가치, 숭실대 "틔움"(박래전 열사 기념사업회 재학생 모임),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숭실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백마 탄 암탉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자치도서관, 영남대학교 민주학생 연대, 이화 비거니즘자치단위 솔찬,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이화생활도서관,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화여대 장애인권 자치단위

틀린그림찾기,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청년노동당, 청년녹색당, 팔레스타인과 함께하는 학생 공동행동,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포럼, 한국외대 마르크스 정치경제학회 왼쪽날개, 한신대 민중가요 노래패 보라성, 한예종 조형예술과 TF, 행동하는 국민대 학생모임 비상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육권/노동권/성인권 특별위원회 미대의외침 (2025.03.25. 12:14 기준 34개 단체)

제안서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LyfVwKx_KHBf0DWABdCYcNomiSbYReWdiA4LFLBM2M/edit?usp=sharing

| 별첨1. 시국선언문

시국선언문 : 세상을 멈추자! 시민총파업, 동맹휴강으로 함께하자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수많은 죽음을 계획한 윤석열을 구속/체포할 의지가 없어 쩔쩔매다가 결국 석방시켰다. 서부지법 폭동과 이화여대 난입 폭력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은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며 세를 불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란을 수습하기는 커녕 극우 세력을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파면 선고를 100일 이상 미루면서 내란 공범 한덕수 탄핵을 기각시킨 헌법재판소는 과연 누구의 동조자인가?

내란 공범들을 성장시킨 양분은 개인을 고립시키는 경쟁 시스템과 약자들의 삶에 대한 방관이다. 각자도생으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며 일터와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를, 정치적인 결사를 확대하지 않은 결과다. 또한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 대한 혐오를 방치한 결과다. **따라서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연대의 힘으로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할 것이다. 나아가, 평등 사회로의 사회대개혁을 실현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3월 27일 전방위적 총파업을 결의했다. 농민들은 트랙터로 서울을 다시 진격한다. 민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헌법재판소와 검찰에게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3월 27일, 광장으로 모여 총파업에 함께하자! 우리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진행되는 수업에 동참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 세상을 멈출 것이다.** 강의실을 뛰쳐나와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불평등한 이 사회를 뿌리부터 바꾸자. 그 어떤 권력자나 엘리트도 단결한 시민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자. 우리의 동맹휴업은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고공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
우리는 시설에 갇혀 살아온 장애인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
우리는 성폭력과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여성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
우리는 성정체성을 부정당하며 생존을 위협받는 성소수자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
우리는 저임금으로 필수 노동을 하면서도 무시당하는 이주민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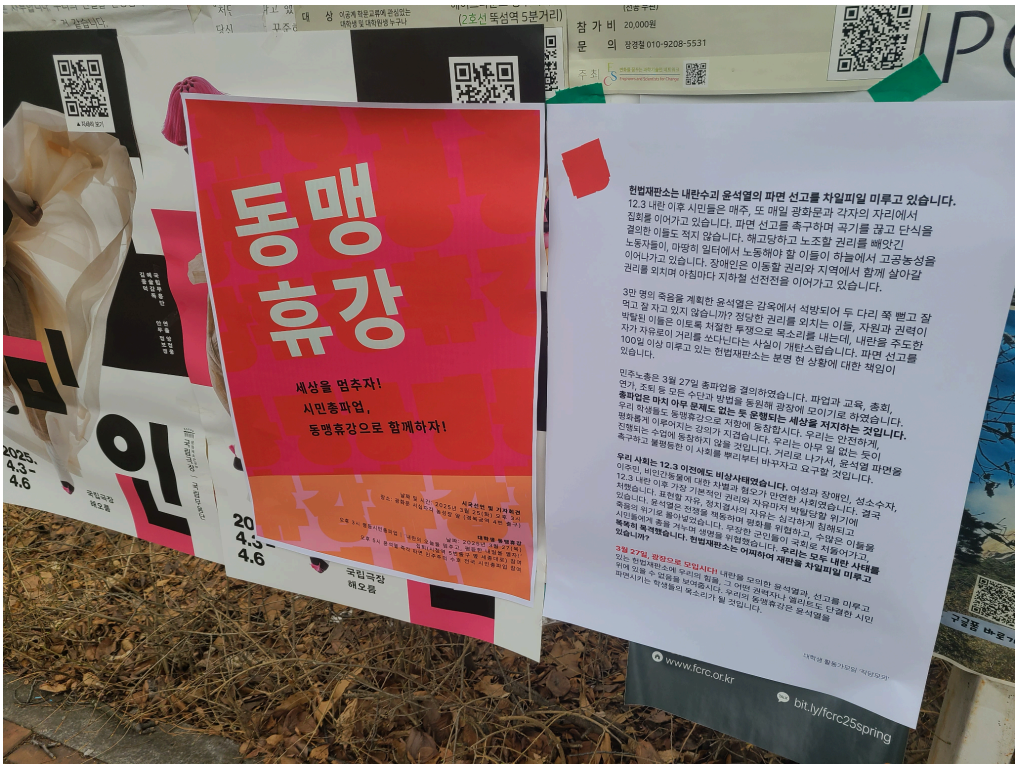
우리는 학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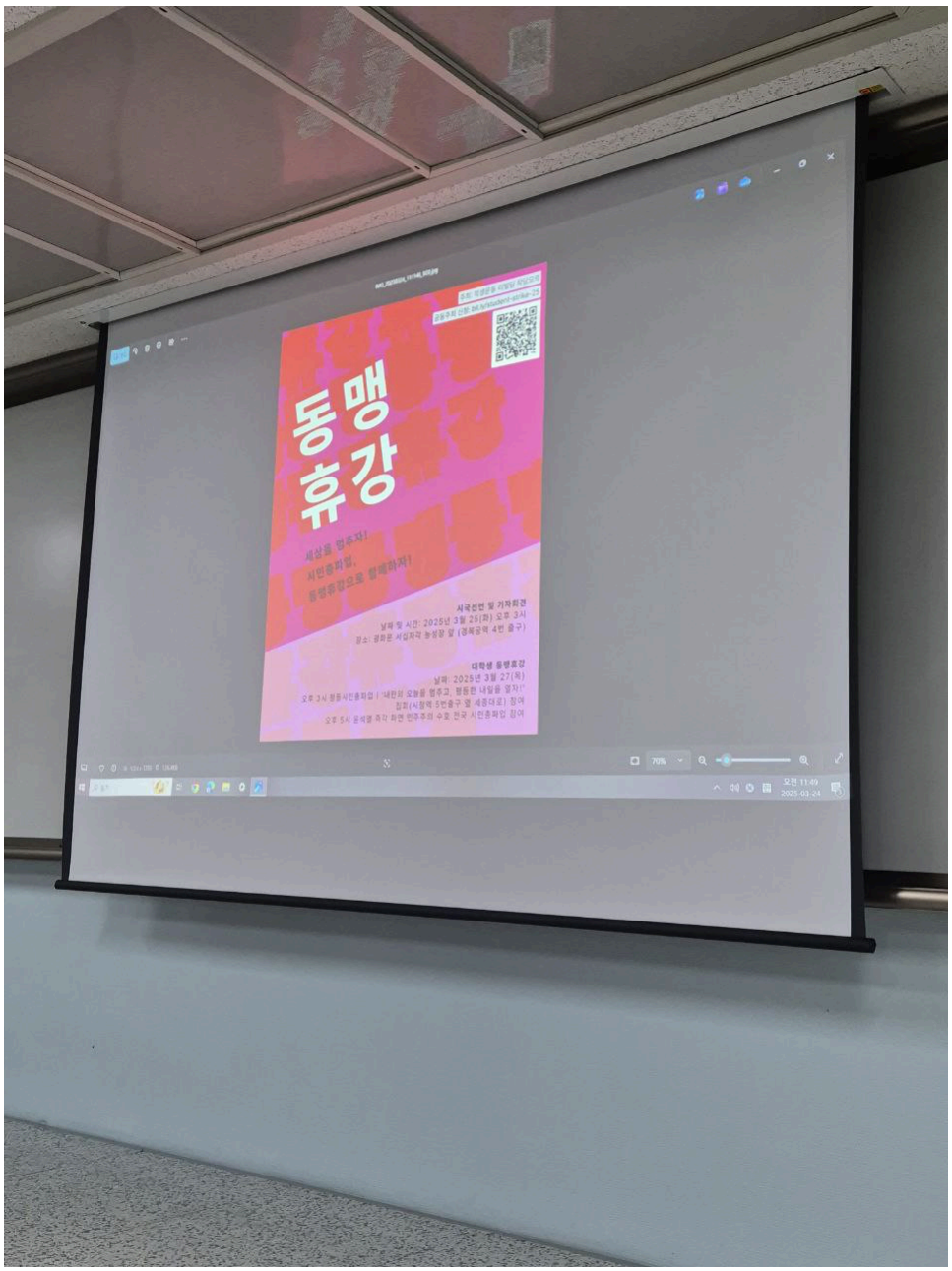
3.27 시민총파업의 날, 우리는 동맹휴강과 총파업으로 세상을 멈추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2025. 03.25

| 별첨2. 기자회견 및 선전전 진행 사진






동맹
휴강
세상을 멈추자!
시민총파업,
동맹휴강으로 함께하자!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
날짜 및 시간: 2025년 3월 25(화) 오후 3시
장소: 경희문 서울자각 농성장 앞 (경복궁역 4번 출구)
대학생 동맹휴강
날짜: 2025년 3월 27(목)
오후 3시 정동시민총파업 | "내란의 오늘을 멈추고, 평등한 내일을 열자!"
집회(서울역 5번출구 앞 세종대로) 참여
오후 5시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총파업 참여

| 별첨2. 발언문

발언1. 한국종합예술학교 돌곶이포럼 권나민

안녕하세요. 계엄으로 인해 학교 폐쇄 조치가 내려진 학교에서 학생 운동을 하고 있는, 돌곶이포럼의 권나민입니다.

저는 3/27일에 있을 총파업의 동참을 위해, 학생들의 동맹 휴강 및 결석 시위에 대해 말하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어진다고 간주하는 이 일상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학생 여러분. 어떤 일상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매일 책상에 앉아서, 12월 3일 이전의 시간과 3월의 시간 간에 어떠한 불연속도 없었다는 듯이 앉아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다시 다음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일상에 대해 곤혹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계엄의 밤으로부터 회복된 것처럼 여겨지고, 또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입니까, 또는 이 삶들을 중단할 수 있는 힘, 무수한 삶의 모습과 양상을 규명하고 분류하고 위협할 수 있는 체제의 권력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언제나 버스가 그 시간에 정차할 것이라는 감각. 누르면 반드시 불이 켜질 것이라는 감각. 자고 일어나면 간 밤의 쓰레기가 전부 정돈되어 있을 거라는 감각. 다음 번의 발을 딛는 순간에도 땅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감각. 일상을 구성하는 이러한 감각들이 언제까지나고 계속될 거라는 믿음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이 같은 믿음이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의 안전망, 우리 자신의 살만한 삶입니까. 또는 삶을 취약하게 내몰며, 삶의 구체성을 축소하거나 압도해버리는 체제의 욕망입니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일상을 지탱하는 이 믿음 속에서 삶을 이어가길 거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상에 저항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동맹 휴강, 내지는 결석 시위는 대학생이라는 특권 아래 결집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학생으로서 광장에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을 삶의 일상으로 두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또 장소들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학식, 복도의 공간, 교실의 공간, 위치한 지역, 보이지 않더라도 여기를 지탱하는 많은 관계망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학생운동이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도시 빈민, 삶의 가시성에서 소외되고 주변화된 사람들과 함께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총파업에 함께하는 동맹휴강은 일상을 지탱하는 자본주의적인, 가부장적인, 위계와 차별을 그 자신의 동력으로 삼는 권력 구조가 질서 지은 자리에 거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평화롭고, 태연한 풍경들을 향한 의심입니다. 또한 우리 삶을 양식화된 일상으로 강제하는 통치 양식에 대한 거부입니다.

블랑쇼와 낭시가 쓴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마주한 공동체'의 한 구절을 낭독함으로써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공동체는 자신 안에 단일성과 본질이 부재한다는 것.
그 부재 위에 열려 벌어진 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 공동체는 공동체에 반대하는 공동체.
낯선 공동체에 반대하는 낯선 공동체.
친숙한 공동체에 반대하는 친숙한 공동체이며.
그 자체 소통과 연합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 못한 다른 모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일상을 중단함으로서, 그 단일성에 내재하는 틈을 벌려봅시다. 거기에서 새롭게 열리는 현실을 함께 상상합시다. 투쟁!

발언2. 한국외국어대학교 마르크스 정치경제학회 왼쪽날개 이찬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마르크스 정치경제학회 왼쪽날개에서 활동하는 이찬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파면 사유는 안 된다는 구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은 어제부로 100일이 지나며 매일같이 역대 최장 기간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군대가 국회의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계엄을 앞두고 대통령이 전쟁을 유도하고, 군에서는 수천 개의 시신 가방을 구입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나 증거가 명백한데, 파면을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파면 선고가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국가의 혼란은 가중되고 민중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모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도록 하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을 해야만 하는 이 체제가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지난 세기, 대학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선봉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승만 독재 시기, 한일협정 반대운동 당시 등등 학생들은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동맹휴학을 통해 불의에 저항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역시 86년에 있었던 건국대학교의 항쟁과,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항거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노학연대와 위장취업은 착취에 맞서 평등한 사회를 위해 투쟁한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독재 정권이 비상조치를 내릴 때면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대학교 휴교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에서는 어땠나요. 부끄럽게도 윤석열은 우리 대학생 '따위'는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노총이 시민총파업을 결의한 이번 주 목요일, 동맹휴학을 통해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학교에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덕여대는 지난 11월 이후로 지금까지 학교 측의 비민주적인 행정에 맞서 가장 선봉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역시 현재 비리 총장의 족벌경영에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극우 세력이 난입하여 학생들의 피켓과 현수막을 빼앗고 불태운 적 있는 충북대에서는 오는 일요일 <민주주의·평등사회를 위한 3.30 청년학생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저희 외대 역시 대학 내 극우세력의 시국선언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예술독서회와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포럼 등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하던 학우분들과 연대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립된 캠퍼스 안에서 외치는 목소리는 윤석열이 생각하듯, 그 힘이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네 달간 투쟁을 통해 서로 이어졌습니다. 전국 수백 개 대학의 수백만 학생이 모여 함께 싸운다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까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총리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총파업을 앞두고 두려웠는지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도 몇 달째 태업하는 마당에, 무슨 근거로 주권자 시민들을 협박하려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투쟁이 미약하다면, 탄압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결한다면, 그 어떤 권력자도 단결한 민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의 차례입니다. 3월 27일 동맹휴강을 통해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동맹휴강은 윤석열에 맞서는 학생들의 힘찬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발언 3.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케이

안녕하십니까. 투쟁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일 수많은 시민 분들이 거리로 나오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서 무지개를 모티브로 한 상징물을 지닌 사람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섞여든 그 풍경에서,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 중 하나인 다양성이 보여 벅차기도 합니다. 여의도 시민 발언에서 성소수자임을 떠는 목소리로 두렵게 고백했던 누군가부터, 광장의 주축 중 하나로 서는 것이 이토록 당연한 지금 이 순간까지. 내란 선동자들이 나라를 뒤흔들며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려 하는 와중에도, 광장은 평등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크나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3월 24일 어제, 한덕수 총리 파면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계에서 기세등등하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란동조 세력은 날이 갈수록 폭력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연된 선고로 인해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잠시 돌아갈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내 모임인 저희의 일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 학교입니다. 3월 개강을 맞은 대학의 풍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대학교에서 동아리 홍보를 위해 붙이는 포스터, 혹은 신입생을 환영한다며 붙은 현수막이 생각나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풍경에 저희는 속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성소수자라는 정체성 아래 모였다는 이유로, 학교가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사자 대부분은 정체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혐오의 시선은 저희가 겨울 내내 광장에서 느꼈던 찬 바람만큼 날카롭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돌아갈 사회는 결코 모두가 기원하는 것처럼 자유롭거나 평화롭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주변을 두려워하는, 계엄과 닮은 일상으로 저희는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는 숨죽여 살아야 하는 일상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휴강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27일 목요일 총파업의 날, 노동자 동지들이 파업을 결의한 날에, 대학 단위들은 동맹휴강으로 연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리로 나와주십시오.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나옵시다. 일하는 시민은 일을, 공부하는 시민은 공부를 멈추고 나옵시다. 그러면 지연된 정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히 미래를 말하고자 합니다. 각자의 가치가 상호교차하는 눈부신 광장을, 이 아름다운 연대를, 지금의 투쟁 목표인 윤석열 파면이 끝난 후에도 지켜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목소리를 더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시민 동지였고, 동지이고, 동지일 성소수자들의 광장에도 지금처럼 함께 서주십시오.

윤석열 파면은 물론, 저희 단위 <이방인>의 이름이 성소수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는 그날까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발언 4. 경기대학교 김희중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의 결말이 동원령으로 귀결된다는 현실을 목격한 지금입니다.

시간이 흐를 뿐, 시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배우는 것보다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저는 미래의 교육자가 되고자 하는 이 시대의 한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학 수업을 당당하게 거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학교를 빠지는 것은 모순적이고, 어쩌면 우스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육학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배운 교육철학자 존 듀이에 따르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성장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광장이야말로 가장 값진 교실이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더 처참해져 갑니다.

특히 저희 경기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설립자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억을 횡령한 비리 총장의 자식이 이사장이 되어 학교를 사유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학생들은 분란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았고, 교수들은 학생들의 울부짖음에도 침묵했습니다.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총학생회장은 당선이 취소되고 억압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도록, 학우들을 설득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목소리를 전하는 데 한계가 있자 우리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학교가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자, 이제 교육부로 가서 농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게 망가진 교육의 책임을 묻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의 정상화 없이 나라의 정상화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정상화 없이 학교의 정상화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 지도자이고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자여야 할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에게 '계엄'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거부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탄핵의 문제는 단순히 비상계엄을 한 사람만을 심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역사를 심판하는 일이고, 이제 도래할 새로운 역사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시계도, 국회의 시계도, 헌재의 시계도 모두 멈춰버린 지 오래입니다. 얼어붙은 나라를 다 같이 녹여냅시다. 시간이 우릴 휩쓸기보단 우리들이 스스로 시간을 흐르게 만듭시다. 그리고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우리들만의 작은 혁명을 다 같이 이루어냅시다!

발언 5.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여경민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경민입니다. 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로 벌써 1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계엄 이후 시민들은 매주, 매일 집회에 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기 위하여 극우세력을 뿌리뽑아야 하고 윤석열 이후 세상은 성평등한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윤석열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해서 더 말하기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석열은 석방되었고 한덕수 탄핵은 기각되었으며 헌재는 '위법하거나 위헌이지만 파면할 사유는 아니다' 같은 판결을 남겼습니다. 헌법은 공동체가 반드시 지키기로 합의한 최소한의 약속이 아닙니까? 계엄 이전에도 부조리와 차별과 억압이 만연했습니다만, 계엄 이후에는 이 사회에 약속이나 규칙이 존재하기는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들의 외침을 무시한 채 그저 의사결정권자의 권력과 이익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의제 민주주의 안에서 대표자들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검찰과 법원과 헌재가 합심하여 시민을 등지고 내란세력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왔지만, 법과 제도 안의 방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상을 멈추고 시민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시민 없이는 나라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뜻을 모으면 그 어떤 권력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3월 27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동맹휴강으로 연대합시다. 이제 더이상 대학에서는 정치적인 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집회의 소음도 없이 평화롭습니다. 저는 이 평화로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맹휴강을 하고, 휴강 사유를 주위에 명확히 밝힙시다. 학교도 정치적인 공간에서 예외가 아님과 윤석열 파면과 평등한 세상을 요구하는 우리의 존재를 알립시다.